흑역사를 백역사로 바꿔 살자

(열왕기하 19:20~37)

20.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3.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24.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25.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26.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27.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28.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흑역사(黑歷史)를 백역사(白歷史)로 바꿔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흑역사를 백역사로 바꿔보자'
오늘 아침에 한 번 철학적이 되어봅니다. 칸트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을 연구하는 것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만, 철학 공부에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삶을 살면서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러려니 하고 묻어두었던 사실들을 질문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철학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나는 돈을 간절히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어두고 넘어가는데 그러나 물어봅니다.
내가 돈을 간절히 벌기를 원하는데 돈이 왜 안 벌릴까? 똑같이 간절히 돈을 벌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나는 못 버는 것일까? 또 내가 하는 일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데 왜 안 될까?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질이도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는데 왜 그럴까? 대체 왜 이렇게 내가 바라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학을 한다고 할 때 흔히 말하는 것이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것도 묻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왜 버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벌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왜 벌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돈이 안 벌리는 이유를 찾아 극복하려고 할 뿐 왜 안 벌리는지 그 자체를 묻는 사람은 없는데 물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묻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원하지만 벌지 못하고, 건강하길 바라지만 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흑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채 삶은 진행됩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돌아보면 원하기만 했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흑역사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흑역사(黑歷史)와 백역사(白歷史)'라는 말은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작품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흑역사(黑歷史)는 좋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찬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고 난징 대학살이나 일제통치하의 잔혹한 짓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흑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백역사(白歷史)는 더 많이 알려야하고 기억하고 기려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르지만 성경에도 흑역사와 백역사는 있습니다.
흑역사의 증거는 우리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의 간절함과 불통의 부딪힘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흑백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흑역사의 인생을 백역사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돈 건강 자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이 진행되는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흑역사로부터 백역사로 판도를 바꾸면 하나하나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는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전체가 백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의 국면들이 어떻게 일시에 다 사라질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역사의 흑에서 백으로 색깔을 바꾸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앗수르 2차 침공이 엎드러지면 코가 닿을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발뺌 기도를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1차 침공 때와 침공 후의 앗수르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에 동맹을 요청하던 때와는 다르게 앗수르라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앗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사건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건과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건을 우선적인 사건으로서 받아들임으로서 눈앞에 벌어지는 앗수르의 2차 침공에 대해서 침묵하자 마음에서 앗수르 2차 침공 사건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됩니다.
앗수르의 침공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어 했지만, 침묵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자, 앗수르의 침공은 나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정이입이 되어서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앗수르 침공을 받고 있는 나라 위기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내가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아부했던 것과는 달리 발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구분이 쉽지 않지만 발뺌의 상태가 된 것의 증거는 지금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게 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합3:17~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처럼 내가 지금 앗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백이 나오면 완전히 발뺌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십팔만 오천 명이 그대로 자멸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산헤립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또한 그 암살한 아들들도 쫓겨나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한편 앗수르의 침공을 받아 전국이 황폐해진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전역에서 먹을 것이 스스로 자라나서 그것을 먹고, 이듬해에는 그것들의 열매를 다시 먹고, 삼년 째에 이전처럼 경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이 일’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은 교만을 부리고 있지만 당시의 앗수르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도 앗수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연전연승의 가도를 달리고 승승장구하는 정복전쟁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옛날부터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행했다’는 것은 지금 BC700년경의 앗수르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나 노아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들로부터 연쇄적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인데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 앗수르의 2차 침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셨고 계획하신바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하시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라고 하시는데 이 사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 다 역사하셨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앗수르에게 당해 멸망한 피정복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앗수르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므로 묻어두실 일인데 왜 이러한 일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빈 공백과 여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신 일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행함으로서 성공이나 실패했다고 해석할 뿐입니다. 마치 운명론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은 운명론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성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제사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국한 시켜서 그 의미를 풀어나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역사가 성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전은 마음의 지성소를 외형화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말씀의 돌판과 죄가 성립함을 뜻하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대로 보자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돈을 담았다면 이것이 죄악이 됩니다. 이 상태로부터 힘이 발생되고 추진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역사가 쓰여 지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았다는 것은 돈이 인생에 있어서 전부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쁠 수 있고 돈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고 기준으로 봅니다. 이럴 때에 힘이 생기고 추진력을 갖게 되는데 죄악의 힘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죄악이며, 이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 건강 권력 자식의 형통 등을 들여놓아서 생긴 힘은 나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의 광화문이나 시청 앞을 보면 수없이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데 만약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충돌해서 누구도 앞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가치들을 담고 추진해 나간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택하는 악함 자체는 인간의 인격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무도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함으로부터 나온 힘들이 마음대로 뻗어가게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악함의 힘을 통제하십니다. 앗수르에 의해 망하게 된 민족들도 악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들도 앗수르와 똑같이 영토를 확장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욱 부흥을 일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악한 힘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다른 재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악한 힘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것에 막힌 나의 악함 힘이 발휘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돈을 벌어도 악함의 힘에 의한 추진력에 의한 것이고 못 버는 것도 악함의 힘에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의 힘조차 섭리하시고 조종하시며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흑역사가 됩니다.
앗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도 1차 침공을 당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흑역사의 주도하심 속에 내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번에 야심작인 삼성 갤럭시 노트7이 홍채인식과 방수장치를 담아서 애플의 아이폰7보다 먼저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에는 달리 신기술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만 풀렸다면 삼성

의 제품이 애플보다 월등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불량으로 인해 전량 회수하고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삼성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앗수르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앗수르처럼 막으시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함의 힘이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시며 흑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은 어디일까요?
다른 악한 민족들이 많았음에도 앗수르의 힘의 형통을 여셔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게 하신 것은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이 먼저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발뺌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함에 의한 힘에 대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중국이 강성해지고, 일본이 교만해서 날뛰고 미국이 이권을 위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선민 한 사람이 그 모든 역사적 급박한 상황에서 발 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위한 흑역사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 나 한 사람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목표점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악함의 힘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해가십니다.

그렇다면 백역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후반부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에 대해 발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 그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함의 힘을 조종하시고 섭리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수행해나가시는데 이것이 백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히스기야의 발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어 나오는 악함의 힘으로 살면서 흑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민으로 붙들고 계시는 한 죽을 때까지 불통이 이어질 것인데 백역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흑역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악함의 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유전 죄로 인해 세상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는 특성이 수시로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십자가 생활화로 틀어막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악함으로 획득하려는 추진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섭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추진해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여백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는 여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함의 힘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흑역사의 삶을 백역사로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

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연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백역사가 쓰여 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내 삶을 백역사로 이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인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흑역사를 원천봉쇄하시고 백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흑역사를 백역사로 바꿀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